

왜 농어업 6차 산업화가 필요한가?

■ 포럼 개요

1. 행사 개요

- 1) 일 시 : 2012년 4 월 5 일(목) 15:00~17:00
- 2) 장 소 : 충남발전연구원 1층 회의실
- 3) 참석자 : 56명

□ 원내

- 원장님, 유학열, 권오성, 정현희, 김현숙, 이영옥, 김영수, 최은미, 편서연

□ 공무원

- 유재룡(충남도 식품산업담당), 최병인(충남도식품산업 주무관), 김응환(충남도향토산업 주무관), 곽영선(금산군청유통 주무관)

□ 발표자

- 김태곤(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분과

- 유통가공분과:23명(분과장:한금남(두루넷 대표))
- 도농교류분과:19명(분과장:이규정(사)충남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회장)

4) 주제발표

○ 6차산업화, 왜 필요한가?

- 김태곤(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글로벌화로 인해 농업에는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도-농간의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농가에서도 계층 간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음.
 - 농업에 대한 개념 전환이 필요한데, 농업 부분은 전 지구적인 문제와 지역적인 문제가 병존하고 있음. 농업의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생가능에너지를 생산해야하며, 농업과 살림 등을 통해 온난화가스를 흡수해야 하고 자연, 국토, 생태 등을 보전해야 함. 또한 공동체와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농촌자원을 활용하여 사업을 전개가 필요함.
 - 농업은 이제 다각화와 6차산업화의 방향으로 가야함. 다각화는 작목을 다양하게

생산하는 것으로 식량작물, 축산, 채소, 화훼, 과수, 재생에너지 등을 종합적으로 생산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임. 6차산업화는 농업이 생산만이 아닌 생산을 토대로 가공, 서비스, 공익 부문을 포함할 수 있는 사업이며, 지역주민이 주도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것임. 6차산업화를 통해 일자리창출, 부가가치향상, 자원보전과 증식, 사회적약자의 참여기회 증대, 지역사회 문제해결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포럼 요약

- 유학열(충남발전연구원 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장)
 - 포럼행사는 연구원주관이 아닌, 포럼회원 스스로가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고 학습하는 자리이며, 포럼의 최종목적은 개인과 마을의 의견이 아닌, 도나 시군, 중앙정부에 정책적인 제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충남 도내의 문제를 공유하고 고민해나가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음. 포럼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습하고 교육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포럼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인적 네트워크 강화하고자 함.
- 이규정((사)충남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회장)
 -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마을과 기업들이 공동체가 되어 토론을 통해 6차산업화 모델을 제시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함.